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權燮)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박이정*

I. 서론

권섭(權燮:1671-1759)은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나 출사하지 않고 일생을 탐승(探勝)과 문학 창작으로 보냈다. 이에 3000여 편에 이르는 한시문과 함께 시가 작품으로 75수의 시조, 2편의 가사를 남겼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1752년(영조 28) 82세 때 창작한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이다. 그 배경이 되는 황강(현 제천시 한수면)은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인 백부 권상하(權尙夏)가 한수재(寒水齋)를 지어 놓고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 힘쓰던 곳이다. 「황강구곡가」는 한수재를 중심으로 주변의 대암(對岩), 화암(花岩), 황강(黃江), 황공탄(皇恐灘), 권호(權湖), 금병(錦屏), 부용벽(芙蓉壁), 능강(陵江), 구담(龜潭) 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권섭의 여타 시가 작품이 매우 발달하고 참신한 관점과 다양한 관심 영역을 보여주는데 반해, 「황강구곡가」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황강구곡가」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데에는 말년의 작품이라는 시기적인 요인 외에 많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밝힘에 따라 작품의 의미도 다층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권섭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박요순¹⁾은 작가의 생애, 자료에 대한

* 서울대 박사과정

1) 박요순, 「시인 옥소, 그 미지의 작품 세계」, 『문학사상』 16, 문학사상사, 1974.

서지적 사항,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해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조동일²⁾은 시조창작에 전념하면서 시조를 다채롭게 구현한 선구자로서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권성민³⁾은 천기론(天機論)에 입각한 문학관에 초점을 맞춰 국문 문학에 관심을 기울인 전문적인 창작자로서 권섭을 바라보고, 그가 사대부 시조 자체내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의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의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⁴⁾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구곡시’ 및 ‘구곡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항강구곡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구곡시’는 사상으로서 성리학이 문학적으로 발현된 구체적인 예가 되며 ‘구곡시’의 성립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국문으로 된 ‘구곡가’가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자기화하는 데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즉 국문 ‘구곡가’는 ‘구곡시’의 전통을 우리말로 구현한 것으로, 주자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재창조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권섭의 백부가 송시열의 학문적 적통을 계승한 권상하임을 염두에 둘 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사상사적 동향이 그의 문학 창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권섭의 문학관은 천기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김창협·김창

_____,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6.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3)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4) 최근 논의를 들면 아래와 같다.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 세명대, 1996.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의식고」, 『한남어문학』 21, 1996.

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1998.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흡 형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진경시(眞景詩) 운동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권섭의 개인사적인 배경과 함께 당대 사상사 및 예술사와 관련시켜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권섭의 생애

권섭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玉所)이다. 삼기자(三奇子)·우소자(迂疎子)·무명옹(無名翁)·천남거사(泉南居士)·옥소산인(玉所山人)·백취옹(百趣翁) 등의 호를 쓰기도 하였다. 1671년(현종 12) 서울 삼청동에서 권상명(權尙明)의 아들로 태어났다. 친·외가가 모두 명문 세대로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에는 인평궁(寅平宮)에서 지내며 효종의 딸인 숙휘공주(淑徽公主), 자의대비(慈懿大妃), 명성왕후(明聖王后), 인경왕후(仁敬王后) 등의 후의를 입었다고 한다.

백부 권상하(權尙夏:1641-1721)는 송시열 학문의 적통을 계승하여 소위 황강팔학사를 배출한 거유(巨儒)이고, 계부 권상유(權尙游:1656-1724)는 이조판서를 지냈다. 외조부 이세백(李世白:1635-1691)은 좌의정을 지냈고 외숙 이의현(李宜顯:1669-1745)은 영의정을 지냈다. 처가 또한 명문가로 장인 이세필(李世弼:1642-1718)은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으로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처형 이태좌(李台佐:1660-1739)는 좌의정을 지냈다. 외숙 이의현과 처형 이태좌는 그와 동문수학한 사이이다. 동생 권영(權榮:1678-1745)은 1732년(영조 8)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승지·이천부사·경주부윤 등 내외직을 역임했고, 장남 권진성(權盡性:權初性)은 송시열의 증손녀이자 박세채(朴世采)의 외손녀를 부인으로 맞는 등 별렬한 가족사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그의 생애는 고단한 역정을 그리게 되었다. 1684년(숙종 10) 14세 때에 아버지 권상명이 별세하였다. 1689년(숙종 15) 19세 되던 해 송시열이 사사되고,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세휘(李世輝) 등과 상소를 올렸다. 1695년(숙종 21) 25세에 부인 이씨가 병사(病死)하였다. 1697년(숙종 23) 27세에 조씨(趙氏)를

재취로 맞았다. 1712년(숙종 38) 42세 때 모친상을 당하고, 삼년상을 마친 후 1714년 44세 때 충북 청풍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1717년(숙종 43) 47세 에는 충남 강경(江景) 북촌(北村)으로 이주했으며 1722년 52세 때에는 다시 전북 고산(高山) 옥포역촌(玉包驛村)으로 옮겼다. 1721년(경종 1)과 1722년(경종 2)에 걸친 신임사화로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진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이 사사되고, 고인이 된 백부 권상하의 관직이 추탈되었으며 계부 권상유, 외숙 이의현 등이 삭직 혹은 문외출송되었다. 1723년(경종 3)에는 장남 권진성이 옥새 위조 사건으로 인해 사사되었다. 1724년(경종 4) 54세에 황강으로 이주하였다. 1759년(영조 35)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권선은 18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않았고 일생을 유람과 문필 활동으로 보냈다. 3세 때에 「제생희(弟生喜)」라는 한시를 짓는 등 유년 시절부터 문재를 떨쳐, 3천여 편을 넘는 한시문 외에 가사 2편, 시조 75수를 창작하였고 국문소설 「설저전」을 한역한 「번설경전(翻薛卿傳)」을 남기기도 하였다. 평생 유람을 즐긴 까닭에 유고 중에는 각종 유행록(游行錄)이 많다. 가사 작품으로는 「영삼별곡(寧三別曲)」, 「도통가(道統歌)」 등이 있고, 시조로는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10수, 「매화(梅花)」 4수, 「병중영분도(病中詠盆桃)」 3수, 「수사(壽詞)」 5수, 「육영(六詠)」 6수, 「십육영(十六詠)」 6수,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游戲有五詠)」 5수, 「소의호(笑矣乎)」 4수, 「비래호(悲來乎)」 4수 등이 전한다. 장남 권진성이 사사된 다음해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쓴 「술회시서(述懷詩敘)」, 「자술연기(自述年紀)」 등이 남아 있다. 문집으로 1936년에 간행한 석판 인쇄본 1본과 문경 화지본(花枝本) 12책, 영수암본(永遂菴本) 40책 등 필사본 2본이 전한다.

Ⅲ. 구곡시(九曲詩)·구곡가(九曲歌) 전통의 계승

이이는 문학이 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리를 내는 것은 사람의 氣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善鳴’을 제시하고 有用之聲, 美聲, 實聲, 正者 등의 용어로 이를 규정했다. 이때 문학은 의미가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듣기 좋아 호감을 주며, 글에 정착되고, 도덕적 당위에 합당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학론을 기반으로 편찬된 『정언묘선(精言妙選)』에서는 ‘충담소산(沖澹蕭散)’을 시를 바라보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⁵⁾ ‘충담소산’은 주자(朱子)의 ‘소산충담(蕭散沖淡)’의 시학⁶⁾과 연관된 것으로, 꾸미거나 속이지 않는 참된 마음 상태에서 문장이나 성물에 수식(修飾)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시의 묘취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이의 문학론은 성리학적 이념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의 가치가 조명되고 그에 따라 성리학적 문학사상이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⁷⁾

현란한 수식을 피하고 경물의 모습을 담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고산구곡가」는 이러한 ‘충담소산’의 미의식 아래 있다고 평가된다. 오곡(五曲)의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봄부터 겨울까지의 변화를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렇듯 사계(四季)와 하루라는 시간을 작품 속에 구축하여 하루와 일년의 순환 아래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고산구곡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자적하고 있는 시인의 내면과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⁸⁾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이를 조선땅에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 이이의 고산구곡은 이후 송시열(宋時烈)의 화양구곡(華陽九曲), 김수증(金壽增)의

5) 『율곡전서(栗谷全書)』 『정언묘선총서(精言妙選總敘)』 : “이는 충담소산한 작품을 주로 뽑았다. 문장의 꾸밈을 일삼지 않아 자연스러운 가운데 묘취가 있다. 그러나 고조(古調) 고의(古意)인 까닭에 아는 이가 적다. 당송 이하의 시는 품격이 혹 고시(古詩)에 미치지 못하나, 그 중 근체(近體)는 조악의 공교함이 없으면서도 저절로 성률(聲律)에 맞으므로 아울러 뽑았다. (此集所選主於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 古調古意知者鮮矣 唐宋以下諸作品格 或不遠古 間有近體 而皆無彫琢之巧 自中聲律 故竝選焉)”

6) 『주자어류(朱子語類)』 : “시를 지을 때는 모름지기 도명명과 유종원으로부터 나와야 좋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소산충담의 의취를 나타냄이 없을 것이다. 티끌 쌓인 세상에 몸을 굽히고 움츠림을 면하지 못하면 고인의 훌륭한 곳에 이르지 못한다. (作詩須陶柳中來乃佳 不如是 無以發蕭散沖淡之趣 不免于局促塵埃 無由到古人佳處)”

7) 조동일, 「이이」, 『(제2판)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98, 201면. [제1판:1978.]

8)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곡운구곡(谷雲九曲) 등에 영향을 미쳤다. 송시열은 「무이도가」에 대한 이황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이이가 해석한 바를 지지하기도 하여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⁹⁾ 이와 함께 1688년(숙종 14) 즈음에 「고산구곡가」의 판본을 만들고 「구곡도」를 제작하며, 김수항(金壽恒), 송규림(宋奎濂), 정호(鄭澍), 이여(李翕), 김수증(金壽增), 김창흠(金昌翕), 권상하(權尙夏), 이희조(李喜朝), 송주석(宋疇錫) 등과 더불어 「무이구곡시」를 차운한 연작시(連作詩) 「고산구곡시」를 짓는 일련의 사업을 벌인다.¹⁰⁾ 이는 이후 「무이도가」·「무이구곡도」

9) 이황은 「김성보에게 답하다(答金成甫別紙)」(『퇴계전서』 권13)에서 “대저 「무이도가」 10수는 입도차제(入道次第)의 뜻이 없었는데 주석자가 천착하고 부회하여 다시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주자선생의 본의가 아니다. ... 그러므로 앞 2구(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는 눈앞에 전개된 경관을 그대로 읊은 것이고 뒤의 2구(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는 지극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진원묘처로 범상한 인간이 아닌 다른 일단의 건곤을 구하라는 의도로 여겨진다.(大抵九曲十絕 並初無學問次第意思 而註者穿鑿附會 節節牽合 皆非先生本意 .. 故詩前二句直敘所見 而末二句意若曰 勿謂抵此境界爲極至處 而須更求至於眞源妙處 當有除是凡常人間 而別有一段好乾坤也云云)”라고 했다. 경물 묘사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別有天”의 의미를 인간 세상과 분리해서 이해하고자 한 이황의 견해에 대해, 송시열은 구곡에 대한 묘사에서 무한한 의취를 찾을 수 있으며 “別有天”과 인간 세상을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무이도가 구곡시를 논하다(論武夷權歌九曲詩)」(『송자대전』 권134)에서 “將窮 두 글자를 살펴본 즉 구곡은 무한한 의취가 있을 뿐 아니라, 桑麻가 깔린 平川에는 기이하고 특별한 모습이 달리 없으나 境外에 眞妙處가 있는 까닭에 다시 桃源으로 가는 길을 찾다고 한 것이다. 대체로 범상한 이치 중에 묘리가 있는 것이며, 死法 중에도 스스로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이다. ... 또한 “非人間別有天”은 더없이 좋은 경관을 말한 것인 만큼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였는가?(竊謂將窮二字 則九曲有無限意趣 且桑麻平川 別無奇特景象 而自有境外眞妙處 故曰更覓桃源路 蓋曰常理之中 自有妙理 死法之中 自有活法之意也 ... 且非人間別有天 則是無上好境界也 豈可使人莫往也)”라고 하였다.

10) 이는 제자 권상하에게 준 편지 「권치도에게 주다(與權致道)」(『송자대전』 권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석담이 매몰된 것은 진실로 차마 말할 수 없다. 예전에 「고산구곡가」가 상자 속에 넣어져 있었는데 작일에 김계달을 통해 정리와 동고에 삼가 보냈다. 이것은 노선생(이이)께서 지은 것으로 김남창이 쓴 것이다. 본떠 새겨서 판본을 만들고자 하며 인하여 구곡도를 만들어 그 아래 붙이고 또한 「무이구곡시」의 운을 써서 각 곡의 위에 적은 즉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右石潭埋沒誠不忍言矣 舊有高山九曲歌 藏在篋笥 昨因金季逢 呈送於京裏

와 더불어 「고산구곡가」·「고산구곡도」가 회화화되어 유포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¹¹⁾ 이 중 「고산구곡시」는 운은 「무이도가」의 것을 취하고 드러내는 뜻은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따름으로써 주자와 이이를 아울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권섭의 ‘황강구곡’ 또한 송시열의 화양구곡, 김수증의 곡운구곡과 함께 무이구곡과 고산구곡을 계승·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강구곡가」가 실려 있는 『옥소장계(玉簾藏齋)』의 체제는 ‘구곡가’ 전통의 계승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武夷權歌詩 (주자)
- 高山九曲記 (최립)
- 高山九曲歌 (이이, 국문)
- 高山九曲歌詩 (송시열)
- 高山九曲武夷權歌韻 (송시열 외 9인 연작)
- 高山九曲 (권섭, 龔栗翁高山九曲歌武夷權歌韻二十首)
- 高山九曲圖說 (권섭)
- 華陽九曲圖說 (권섭)
- 華陽九曲圖說後記 (권섭)
- 華陽九曲圖說又書 (권섭)
- 九曲詩 (권섭)
- 尤菴先生畫像讚 (권상하)
- 尤菴先生畫像讚 (김창협)
- 黃江九曲歌 (권섭, 국문)
- 黃江九曲用武夷權歌韻翻所詠歌曲 (권섭)
- 黃江九曲圖記 (권섭)
- 黃江九曲後記 (권섭)
- 寒水先生遺像讚 (권섭)
- 又一本 (한원진)
- 撰 (채지홍)
- 撰 (윤봉구)
- 黃江書院廟庭碑 (권섭)

及東郊矣 此乃老先生所作 而金南密筆也 欲摸勒爲板本 爲九曲圖付其下 而且用武夷九曲詩韻 題於各曲之上 則可全勝事一圓焉”

11) 이만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 출판부, 2000, 278면.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옥소장계』에서 권섭은 주자의 「무이도가」, 이이의 「고산구곡가」와 그에 대한 송시열 등의 한역시 및 관련 기록 등을 실고, 자신의 「황강구곡가」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무이구곡→고산구곡→화양구곡→황강구곡으로 구곡 경영의 전통이 계승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황강구곡가」의 일차적인 의미는 주자, 이이,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지는 연계성과 권상하의 도학자적 삶을 부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늘이 뉘홀 여러 地界도 붉을시고
 千秋 水月이 분밧긔 몹아세라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불 듯ㅎ여라
 -「황강구곡가」 제1수

三曲은 어드메오 黃江이 여괴로다
 洋洋 絃誦이 舊齋를 니어시니
 至今의 秋月亭江이 어제론 듯 ㅎ여라
 -「황강구곡가」 제4수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술런고
 일흠이 偶然ㅎ가 化翁이 기드런가
 이 中의 左右村落의 살아불가 ㅎ노라
 -「황강구곡가」 제6수

「황강구곡가」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地界가 밝고, 水月이 맑다고 한 것은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황강에 대한 묘사로 보인다. 중장의 “石潭”은 이이의 「고산구곡가」가 이루어진 곳이다. “千秋 水月”이 밝게 비추는 곳에서 “石潭”을 다시 볼 듯하다고 하면서 권상하의 황강 은거와 이이의 고산 은거를 연관시킴과 동시에 이 작품이 「고산구곡가」를 전범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4수의 “舊齋”는 권상하가 후학을 길렀던 한수재(寒水齋)를 가리키며 글 읽는 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여 그의 학문이 계승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장에서 지금의 풍경이 어제와 같다고 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제6수에서는 權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沼)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소의 이름과 가문의 성씨가 일치함이 우연인가 아닌가 물으면서 황강과 권상하의 관계가 조화옹(造化翁)에 의한 필연임을 넌지시 내비치

고 있다.

권섭은 백부 권상하와 관련된 학문의 정통성 계승뿐만 아니라 자신에 의한 '구곡가'의 계승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여러 선현과 자신이 지은 수많은 구곡체 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으로 된 「황강구곡가」를 창작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황강구곡가」가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전범으로 삼았음은 두 작품 모두 '곡은 어드미오'라 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고 해당 곡(曲)을 명명한 후, 주위 경관의 모습이나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가 없으며, 「황강구곡가」 제1수의 종장 등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섭이 지은 우리말 시가의 편수를 염두에 두면 그에게 문학적 형상화 수단으로서 우리말이 어느 정도 의미를 지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황강구곡에 대해 국문시가를 창작한 주요하고 실제적인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문시가에 대한 친숙함 이상의 의미가 「황강구곡가」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황강구곡가」의 창작은 당시 상황과 조용하여 권섭 개인적으로, 문학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다.

IV. 진경(眞景)·진경시(眞景詩)에 대한 지향

권섭이 생애를 보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는 명이 망한 상태에서 조선이 성리학의 범통을 이은 유일한 중화국가라는 의식 아래 성립된 소위 '조선중화주의'가 시대 이념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시기이다.¹²⁾ 조선의 국토 산천에 대한 사실적 묘사 속에 성리학적 이념을 융합시키려고 했던 김창협·김창흡의 진경(眞景)에의 요구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예술 창작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¹³⁾

12) 정옥자,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1.

_____,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13) 김창협·김창흡 문학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저를 참조하였다.

강해선, 『김창협 고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_____,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1992.

김창협·김창흡 등에 의해 주창된 진경시(眞景詩)는 전대 문학의 복고주의적 취향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천기(天機)의 자연스러운 유로를 통해 시인과 시적 대상이 지닌 참된性情(性情)의 발현을 강조한다. ‘遇境摸眞’, ‘踐境記實’ 등을 구체적인 형상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대상을 직접 접한 이후에 그 대상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에 전국을 유람하며 산수 자연의 실경(實景)을 묘사하고 이에 담겨 있는 조선의 역사와 풍속을 적극적으로 시화(詩化)하였다. 요컨대 김창협·김창흡의 문학론에서는 도문일치(道文一致)적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도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음을 그 핵심으로 하여, 사경(寫景)의 사실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지닌 정신성, 상징성을 포착해서 드러내는 것을 주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문학론에서는 의론을 배제한 경물 묘사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와 인간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치, 즉 성리학적 이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기호 사림의 문학론을 계승하여 그 완성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권섭의 문학론은 묘사의 사실성과 함께 대상의 정신성, 상징성 포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김창협·김창흡의 문학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시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천기가 유동하는 것이 있어서 인력으로서는 미칠 바가 못된다.”¹⁴⁾라는 언급에서 그 또한 시작(詩作)에 있어 천기의 발현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도 김창협·김창흡의 문학론과의 유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김남기, 「김창흡의 산수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나중면, 「18세기 詩書畫論의 미학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8, 2000.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송혁기, 「김창협 문학론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태학사, 1999.

이종호, 「삼연 김창흡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9·10, 1987.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1.

진영미, 『농암 김창협 시론 연구』, 보고서, 1999.

14) “至於詩 則自有天機流動者 非人力所可及” : 『옥소집』 「文·三」 「조수재진헌에게 보내다(書贈趙秀才鎭憲)」

“무릇 각각은 재주에 따라 그 분수에 맞추어 각각 스스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대궐이나 여항의 집, 초가, 또는 음악 등은 그 훌륭한 정도는 다르지만 짓는 순서나 원리는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저것이 이것보다 조금 낫다고 하여 이것을 비웃으니 어리석다. 스스로가 그것에도 또한 자기보다 나은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또한 자기가 자기를 비웃는 것이다. 상고에서 한, 당, 송, 명 그 밑으로 내려와도 또한 거의 같다. 무릇 지금 사람이 어찌 고인을 배울 수 있는가. 변방의 풍습과 기질이 중국의 토양과 다르고 말세의 인품이 상고시대보다 못한데, 억지로 미치고자 한들 어찌 모양이 닮을 수 있겠는가? 각자가 스스로 그 분수에 충실할 것 같으면,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가 하나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보이는 것이 명과 같을 수 있겠는가? 명이 송과 같을 수 있겠는가? 송이 당과 같을 수 있겠는가? 당이 한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한이 삼대와 같을 수 있겠는가?”¹⁵⁾

위에서 권섭은 문학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문학의 등가성과 더불어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괄하고 있는 ‘각자성장(各自成章)’이라는 용어를 통해, 중국과 우리의 문학이 차이가 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¹⁶⁾ 위와 같은 서술과 함께 생애의 많은 시간을 조선의 산수 자연에 대한 탐승에 할애하고 그것이 문학 작품의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론에서 진경(眞景)에 대한 지향이 차지하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문학론은 정철의 「관동별곡」이 지닌 의미를 인식하고¹⁷⁾ 같은 지역을 탐승한 후 「영삼별곡」을 창작하였으며, 국가 행사에 쓰이는 제향악, 군악, 불교의 선악, 기생의 여악, 시정잡배의 잡악, 무당의 무악 등을 소재로 한 「육영(六詠)」과 같은 시조 작품을 남겼다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육영」은

15) “大抵各因其才而充其分 各自成家可也 殿屋草窳貧富不等 而體段則皆具之矣 彼稍勝於此者則輒笑之陋矣 不自知其又有勝於已者 又已笑己矣 上古之於漢唐宋明其低而低又其等也 大抵今人何可學古人 偏邦風氣異於中土 季世人品下於上古 強欲企及 何能形似 各自充其分則毋論高下 各自成章耳 其見於東國其如明乎 明如宋乎 宋如唐乎 唐如漢乎 漢如三代乎” : 『옥소집』 「文·三」 「조수재진현에게 보낸다(壽贈趙秀才銀憲)」

16) 권성민, 앞의 논문, 26-28면.

17) 가사 문학에서 실제 경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극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관동별곡」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려한 국문 구사로 높이 평가되므로, 국문 문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들에게 정철의 시가 문학은 귀중한 문학 전통으로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궁중의 음악에서부터 사대부와 승려의 음악을 비롯해 최하층인 천민과 무당의 음악을 두루 아우르고 있고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미술, 무용 등 예술 전반을 다루고 있어 작가의 폭넓은 관심사를 보여주는 한편, 예술 각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작가의 시각을 드러낸다.

같은 맥락에서 권섭은 「황강구곡가」를 통해,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우리 땅에 재현시켜 조선의 산수 자연이 지닌 이법(理法)을 조선의 언어로 노래한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높이 평가한 전대의 작업을 계승하고, 그 완성을 추구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황강구곡가」는 '조선중화주의'라는 시대적 이념의 영향과 진경(眞景)을 지향하는 당대 예술사의 흐름 아래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면모를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황강구곡가」 제1수의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볼 듯 ㅎ여라”는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되는 「고산구곡가」 제1수의 종장은 “武夷를 想像 ㅎ고 學朱子를 ㅎ리라”이다. 여기에서 이이는 주자와 무이구곡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지향을 드러냈다. 권섭의 작품에는 주자의 무이구곡 대신 이이의 석담 즉 고산구곡을 제시하였다. 「황강구곡가」에서 주자가 아닌 이이를 언급함은 이이의 고산구곡에 대한 계승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이는 무이구곡을 '상상'한다고 한 반면, 권섭은 고산구곡을 '다시 본다'라고 하였다. 이이에게 무이구곡은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였으나, 권섭에게 고산구곡이 있는 석담은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보았던 장소였다. 고산구곡은 권섭의 감각 기관으로 인지된 객관적 실제로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시인이 의도한 재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고산구곡이 무이구곡의 상상적 재현이라면 황강구곡은 고산구곡의 실제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이가 「고산구곡가」를 통해 성취한 바, 즉 무이구곡의 조선적 재현인 고산구곡의 산수 자연을 조선의 언어로 노래한 의의를 권섭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황강구곡가」는 「고산구곡가」를 통해 자신의 위상과 성과를 높이고, 「고산구곡가」는 「황강구곡가」를 통해 확실한 전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二曲은 어드메고 花巖에 春晩커다
 碧流에 곳출 띄워 야외로 흘너간다
 世俗이 勝地를 모르니 알게 혼들 엇더리 -「고산구곡가」 제3수

二曲은 어드메오 花巖도 도홀시고
 千峰이 畚沓□디 恨업슨 烟花로다
 어더서 犬吠 鷄鳴이 꿀꿀이 들닌는다 -「황강구곡가」 제3수

위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황강구곡가」의 경우가 보다 회화적임을 알 수 있다. 「고산구곡가」에서는 화암의 경치를 즐기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황강구곡가」에서는 화암의 경치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작품 전체적으로 「고산구곡가」에는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황강구곡가」에는 풍경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이 많이 보인다. 실제 체험한 공간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황강구곡가」에서는 이러한 체험이 보다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경물 묘사로의 경사는 실제 체험과 이를 통한 진경 및 천기의 발현을 중요시한 예술사적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권섭이 「무이구곡도」, 「고산구곡도」를 벽에 나란히 걸어 놓고 즐겼으며¹⁸⁾ 화필에 능했던 손자 권신응(權信應)으로 하여금 「황강구곡도」를 그리게 했다는 사실은 문학과 회화가 접맥된 양상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이구곡도」와 그것의 조선적 재현인 「고산구곡도」가 나란히 놓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직접 보았던 석담의 풍경을 떠올림과 동시에 자신의 눈앞에 이 둘의 재현인 황강구곡의 실경이 펼쳐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에게 주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 실경이 지니는 진경으로서의 면모이기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감각적 묘사에 힘썼다고 할 수 있다. 「황강구곡도」가 황강구곡의 진경에 대한 회화적 표현이라면 「황강구곡가」는 그 진면목에 대한 문학적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고산구곡가」의 각 수 초장에서 ‘곡은 어드미오’에 이어지는 2구는

18) “武夷高山之簇對樹之於雙壁”: 『옥소집』 권9 「황강구곡도기(黃江九曲圖記)」,

‘*에 *이 어떠하다’로 표현 방식이 대체로 일정하다. 「황강구곡가」에서는 초장 제2구의 표현이 각 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對巖이 奇異홀사”, “花巖도 玆홀시고”, “黃江이 여기로다”, “일흠도 홀난홀사”, “이 어인 權술런고”, “屏山이 錦繡로다”, “芙蓉壁이 奇絶홀사”, “陵江洞이 뭍고 汲회”, “一閣이 그 누러니”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다양한 표현 양상은 그 자체로 다양한 시각과 표현을 추구했던 당대 문학론의 경향과 작가 자신의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고산구곡가」의 변주라는 점에서 「고산구곡가」에 대한 재창조로서 의의를 지니며 국문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여러 시가 작품의 창작을 통해 성장한 그의 시적 재능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¹⁹⁾

아래의 「황강구곡가」제10수는 구담(龜潭)에 대한 것으로 종장의 “저기 別有洞天”은 구담을 지칭한다.

九曲은 어드메오 一閣이 그 누러니
釣臺 丹筆이 古今の 風致로다
저기 저 別有洞天이 千萬世가 흥노라

-「황강구곡가」 제10수

제10수에 그려진 대상은 구담인데 이는 권섭이 매우 아꼈던 곳이다. 그는 구담의 맞은편에 정자를 지어 놓고 그 뒷머리에 자신의 묘자리까지 마련해 놓았으며 비문까지 손수 지어 두었다가 그곳에 묻혔다. 제10수의 종장에서는 “무이도가, 제10수의 “別有天”을 언급하면서 “別有天”이 “千萬世”나 지나 시적 화자가 가리킬 수 있는 “저기” 곧 구담에 보인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주자의 “別有天”이 자신에게 있어 “구담”으로 재현됨을 말하고 있다. “別有天”의 재현인 구담은 황강구곡의 마지막 구비에 있는 승경일 뿐만 아니라, 주자, 이이, 권상하로 이어지는 흐름이 권섭에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19) 특히 1704년(숙종 30) 34세 때 삼척부사로 있던 장인 이세필을 찾아가서 영월과 삼척 일대를 여행하고 지은 가사인 「영삼별곡」은 정철의 「관동별곡」의 영향을 받은 여타 작품들과 달리 「관동별곡」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표현과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나름의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될 만큼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결정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V. 당대 사상계 동향과 작품 창작의 배경

앞서 권섭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1714년 청풍으로 이주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에 노론 학계 내에서는 人物性同異·聖凡心同不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락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1714년 즈음은 권상하 문하에서 촉발된 논쟁에 서울의 문인이 참여하기 시작한 때이다.

호락논쟁과 권섭의 청풍 이주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일정 정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1712년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봉양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소 탐승(探勝)을 즐긴 그로서는 서울을 떠나 산수자연에 파묻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을 떠나는 것과 본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만약 권섭이 호락논쟁에 있어 낙론을 지지했다면 서울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갈 기회를 보았을 것이다. 즉 청풍 이주가 호락 논쟁에 따른 입장 표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지만,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락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²⁰⁾ 낙론은 모든 대상에 같은 이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개별 주체들의 도덕적 가능성을 최대한 인정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성장하는 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술적으로는 다양한 관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청(對淸) 인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조하였다.

문석윤, 「조선후기 호락논쟁의 성립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유봉학, 「18-19세기 연암일파 북학사상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이경구, 「김창흠의 학풍과 호락논쟁」,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조성산, 「18세기 후반 노론 낙론계의 사상적 동향과 경세론」,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었다. 이에 반해 인(人)과 물(物) 각각의 이치가 다르다고 보는 호론은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분별주의, 명분주의로 볼 수 있다. 이는 윤리관을 재확립하고 가치의 혼란을 막는 당면 과제의 해결에 긴요한 논리가 되었다. 호론의 입장은 '차이'에 대한 강조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적전(嫡傳)으로서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데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청풍 이주 전 청년기의 권섭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²¹⁾ 그리고 김창협·김창흡을 비롯해 그들의 문인들과 교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내부적·외부적으로 권섭은 낙론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그는 청풍 이주를 단행하여 암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에는 청풍 이주 직전에 당한 모친상과 함께 이후 이어지는 개인적인 삶의 역정이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721년(경종 1) 백부 권상하가 세상을 떠나고, 1724년 계부 권상유도 별세하였다. 권상하의 장남 권욱(權煜)은 1717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나머지 아들들은 권섭보다 어렸다. 때문에 권섭이 집안의 여러 일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1721년·1722년에 걸친 신임사화로 주변 인물들이 화를 입었고, 1722년부터 문제가 되던 어보 위조 사건으로 인해 아들 권진성이 1723년 1월 부대시처참(不代時處斬) 되고 가산을 적몰(籍沒) 당했다. 한편 청풍 이주 후 1717년(숙종 43) 47세에 충남 강경 북촌으로 이주하여 여산 무영평(無影坪)에 농토를 매입하고 무주(茂朱) 산곡(山谷)에 산을 매입하여 경제적 안정을 꾀했으나 여의치 않아 1722년 전북 고산 옥포역촌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자술연기(自述年紀)」에 “정유년(1717년) 봄부터 집안이 재난을 만나 7년 사이에 재산을 다 날려 몸을 맡길 곳이 없었다.(自丁酉春 遭家艱難 七年之間 蕩析家產 靡所托身.)”라고 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21)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다음에서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문과 시를 지으면 고인의 법에 따르지 않고 마음기는 대로 썼으며 또한 지금 사람들과도 같지 않아서, 남들이 모두 이를 헐뜯었다.(余作文作詩 非古人之法 從心書之 而亦與今人不同 人皆訛之)” : 『옥소집』 권6 「散錄」.

있다.

이 때를 즈음하여 한시적으로 무명옹(無名翁)이라는 호를 썼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섭은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무감에 빠졌으리라 추측된다. 의지했던 주변 인물들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1724년(경종 4) 54세에 권상하의 유적이 남아 있는 황강으로 이주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황강 이주 이후, 정체성을 찾고자 한 권섭의 노력은 외부적·내부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1725년(영조 1)에 권상하의 추탈된 관직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으며 황강서원을 건립하여 1727년(영조 3)에 사액을 받았다. 1735년 즈음에는 한원진, 윤봉구 등과 상의하여 권상하의 문집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이르렀다.²²⁾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황강구곡가」는 말년에 그가 자신에게 제시한 문학적 대안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황강구곡가」에 앞서 1748년(영조 24) 78세 때 중국의 도백과 우리나라 도학의 제보를 내용으로 한 「도통가(道統歌)」를 지었다는 점²³⁾은 문학적 대안을 찾는 일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도통가」를 서곡으로 하여 문학을 통해 생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구곡가」의 전통이야말로 자신이 재주가 있는 국문시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강구곡가」는 이이의 「고산구곡가」와 그에 대한 송시열, 권상하 등의 계승을 담은 『옥소장계』 가운데 실림으로써,

22) 한원진이 1735년에 권섭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세 벌의 등본(謄本)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남당집』 권16 「권조원섭에게 답하다(答權調元燮)」 참조.

23) 「도통가」의 “聖學輯要 一部書는 一生의 精力이라 / 名目로 奇特하고 次序도 紊을 시고 / 그 끝에 늙은 先生 私淑하여 나뉠말가 / 一白卷 지은 글이 篇篇이 朱子로 다 / 罔極한 大禍根이 門屏의 니러날사 / 天地間 一直字를 後學의 맞기거나 / 華陽 萬東廟를 뜻 바다 지으시니 / 萬古綱常이 떠러질 적 이실손가”와 같은 부분에서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와 관련한 노론의 정치적·학문적 입장 및 이이에서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학의 맥락에 대한 염두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송시열을 주자의 재현으로 보고 송시열과 권상하에 의해 이루어진 만동묘를 춘추대의의 발현으로 현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이루어진 맥락을 짐작할 수 있다.

백부 권상하의 도학적 적통을 밝히는 동시에 이이에서 권섭 자신으로 이어지는 '구곡가'의 문학적 적통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 중 하나로 '차이'에 의한 정체성을 강조했던 호론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1714년의 청풍 이주와 호락논쟁이 서로 연관된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이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황강 주변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이 둘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권섭은 백부 권상하가 지지했던 호론의 근거지에서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그 학문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 사상적 내용에 힘입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기회를 얻었을 수 있다. 즉 분별주의, 명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호론의 입장을 통해 개인사적 굴절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상황을 타개해 갈 윤리관 및 가치관,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다. 『옥소장계』에 보이는 한원진, 채지흥, 윤봉구 등의 이름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섭은 이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도학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권상하의 문집 편찬 등에 대해 상의했다. 권상하의 문집을 완성하지 못한 채 1741년에 채지흥, 1751년에 한원진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자신의 생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름의 결과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황강구곡가」를 창작하고 이를 수록할 『옥소장계』를 편찬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VI. 결 론

본고에서는 「황강구곡가」의 창작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이 「고산구곡가」과의 연속성, 권상하의 학문적 정통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권섭은 자신과 작품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인했다고 보인다. 더불어 작품의 여러 면모에서는 '조선 중화주의'의 문학예술적 표현으로서 당대 예술계를 풍미했던 진경의 발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사적 부침(浮沈)과 관련해 당시 사상계에서 이루어졌던 호락논쟁의 영향도 고려해보았다. 이 중 낙론의 논의는 이후 상대주의적 세계관으로 나아갈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권섭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황강구곡가」는 과거적인 현재에 안착한 권섭의 모습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선, 「김창협 고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_____, 「17·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1992.
-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남기, 「김창흡의 산수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 1991.
- 김병국, 「『고산구곡가』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_____, 『고전시가의 미학탐구』, 월인, 2000.
-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 나종면, 「18세기 詩書論의 미학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8, 2000.
- 문석윤, 「조선후기 호락논쟁의 성립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식고」, 『한남어문학』 21, 1996.
- 박요순, 「시인 옥소, 그 미지의 작품 세계」, 『문학사상』 16, 문학사상사, 1974.
- _____,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6.
- 송혁기, 「김창협 문학론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태학사, 1999.
- 유봉학, 「18-19세기 연암일파 북학사상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1998.
- 이경구, 「김창흡의 학풍과 호락논쟁」,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민홍, 「고산구곡가고」, 『성대문학』 18, 성균관대, 1973.
- _____, 『(중보판)사림파문학의 연구』, 월인, 2000.
- _____,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 출판부, 2000.
- 이종호, 「삼연 김창흡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9·10, 1987.
- _____, 「삼연 김창흡의 시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 세명대, 1996.

- 임형택, 「16세기 사립파의 문학의식」, 『한국학논집』 3, 1975.
-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 정옥자,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1.
- _____,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 _____,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제3판 : 1994.)
- _____,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조성산, 「18세기 후반 노론 낙론계의 사상적 동향과 경세론」,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진영미, 『농암 김창협 시론 연구』, 보고사, 1999.
- 최진원, 「고산구곡가와 담박」,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을문사, 1988.
-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